

과학글쓰기 공동체 몽사이 夢-SCI

“과학은 도구가 아니니”
잃어버린 ‘장대’와 ‘작리한 깊은 직술가들’



몽-SCI(꿈꾸는 과학)는 번역과 일러스트레이션을 포함한 ‘과학글쓰기 공동체’다. 모임을 만든 KAIST 정재승 교수는 “기본적으로 과학서적을 함께 읽고, 자유 토론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을 키우며, 체계적인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과학 분야의 대중적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과학도들이 웬 글쓰기 모임이나? 과학을 전공했으면 과학자가 되기 위해 실험실에 박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탄죽을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몽사이 회원들은 과학도들이 해야 하는 게 연구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졸업 후 (과학)저술가가 될 수도 있고 (과학)저널리스트가 될 수도 있다. (과학)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시인이나 철학자가 될 수도 있다. 과학은 삶의 원리와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몽사이 회원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위를 돌아보세요. 과학 아닌 게 있나요?”

“주변의 사물들을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니까 당연히 굴러가야 하고 비누는 비누니까 때가 씻겨지고,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대신 원리가 있죠. 내 주변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원리를 알았을 때의 즐거움, 그게 과학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최승원 고려대학교 생물학과)
뿐만 아니다. 과학에 로그인하면 ‘감동과 쾌감’이 있다.

“전 원래 소설을 좋아하는데 감동적인 소설을 읽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책을 읽으면 흥분을 느껴요.” (장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학과)

“과학은 사물을 다루는 재미없는 학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칸트의 시공간 개념과 같이 근대사회의 철학은 과학적 사유에 그 토대를 두고 있어요. 사진이나 비디오아트에서 볼 수 있듯 예술 역시 과학의 발달에 기대고 있기도 하구요.” (이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똑같은 두 개의 호박을 키우더라도 그냥 둔 호박보다는 사람이 있을 때 먹은 호박이 훨씬 건강하게 자란다. 여기까지가 과학이다. 하지만 이 과학적인 사실에서 시련이 삶의 주체를 더욱 강인하게 만든다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생의 이면에 숨겨진 삶의 본질을 꿰뚫는다는 점에서 과학자는 곧 시인이기도 하다.

몽-SCI의 시작과 운영

앞서 정재승 교수가 소개했듯이 몽사이의 기본적인 활동은 과학서적을 읽은 후 토론하고, 체계적인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몽사이는 단지 아마추어리즘에 머무르지 않고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매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상업출판사를 통해 정식

으로 출판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도서출판 푸른숲에서 나오게 될 《있다면 없다면》이다. '방귀에 색깔이 있다면', '하늘에서 줌스비[雨]가 내린다면' '만약 전선이 모두 사라진다면' 등처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 봤음직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과학교과서나 최신 과학논문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풀어나간다.

두 번째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공리에서 나오게 될 《일본과학 대탐험》(가제)이다. 몽사이 회원들이 일본에 직접 가서 확인한 일본 과학의 현주소. 연구소를 방문해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연구하는지 또 과학박물관 등을 통해 과학이 대중과 어떻게 호흡하는지 살펴봤다.

"대용량의 배터리가 아니어도 전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바로 자가발전이다. 사람은 하루에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다. (...) 신발 바닥에 압축식 발전기를 만들어 걸을 때마다 체중의 압력으로 전기가 생산되도록 하고 양어깨나 관절에도 회전식 전자석을 설치한다면 팔을 돌리고 움직일 때 전기를 얻을 수 있다. (...) 전선과 함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우리는 이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고 전선의 자리를 첨단으로 무장한 기술로 대체하려 한다. 전선이 사라진 자리는 우리에게 흥분함과 해방감을 선사해 줄 것이다."(〈만약 전선이 모두 사라진다면? - 걷고 말하는 신체활동으로 휴대전화 충전〉 중에서)

《있다면 없다면》의 경우 한 사람이 한 쪽지씩 맡아서 글을 썼다. 1기가 초고를 쓰고, 퇴고는 1기와 2기가 함께 모여서 했다. 한 명이 글을 완성해 오면 '도마' 위에 올려졌다. '어렵다', '지나치게 쉽다' '이해가 안 된다' '장황하다' 등등 비수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날라 왔다. 그래서 나간 회원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이들은 다름 아닌 자신이 쓴 글이 정가가 붙은 책으로 나왔을 때 돈을 주고 사볼 독자이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푸른숲에서 저희 책을 담당할 편집자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이었는데 의견충돌이 많았죠."(김호식 KAIST 바이오시스템)

너무 쉬우면 깊이가 없고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흥미를 잃게 하고, 할 말은 많은데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차라리 실험을 하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는데...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이 몽사이 회원들은 대중을 향한 과학 글쓰기의 원리를 깨우쳐 갔다.

"사실 원리라는 게 한번 이해를 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한테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기본이예요. 글을 쓰면서 느낀 거지만 독자와 끝까지 여행을 마치려면 자신만의 개성이 필요합니다. '위트' 같은 거죠."(이연경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지난 4월 9일에 모인 회원들은 함께 거리로 나섰다.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대학교 강의실을 전전했지만 이젠 자신들만의 공간에 다양한 글을 쓰기 위한 장비(컴퓨터)도 갖다 놓고, 자료도 쌓아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회원도 대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과학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으로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만화나 일러스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을 찾는 것도 급선무다.

"우리 사회에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과학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했을 뿐 사회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 스스로도 그러려고 하지 않았구요."

한 인문대학생의 지적은 신제품 개발에 앞장섬으로써 '경제발전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초상을 의미심장하게 지적하고 있다. 아폴로11호가 달착륙을 했을 때 미국 CBS방송 앵커 윌터 크프카이트의 옆 해설자석에 앉은 사람이 다름 아닌 《2001: A Space Odyssey》(1968)를 쓴 과학자이자 공상과학소설가 아서 클라크였다. 그가 이미 몇십 년 전에 달 착륙을 예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폴로11호를 쏘아올린 과학자들이 다름 아닌 그의 독자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의 위기는 과학자의 부재가 아니라 과학자와 일반인 사이의 연결고리 부재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출판저널>이 몽사이를 주목한 이유다. [4]

취재_신동섭기자 | 사진_박신우기자



《일본과학 대탐험》 교정작업을 위해 모인 몽사이 회원들.



《일본과학 대탐험》 시안.